

# 바이든, 마지막 유엔 연설 “함께해야 강력”...고립주의 경고

### 트럼프 재집권 걱정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중동평화 당부 北 언급 안해...“인태 전역 동맹·파트너십 네트워크 강화할 것” 美 언론 “권력유지보다 국민 중요” 독재자·트럼프 겨냥 발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고립주의 성향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불안해하는 세계 정상들에게 국제사회가 전쟁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난 많은 이들이 오늘 세계가 마주한 어려움을 보고 절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우리에게 사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강하다”면서 “우리가 협력하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중요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끝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민주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통령 후보가 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대선 TV토론에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이기기를 바라라는 질문에 직답하지 않

은 채 조속한 종전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의 충돌이 전면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한 뒤 “전면전은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의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파트너십은 어느 나라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구성하는 요소”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매년 유엔총회 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도 다뤘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이 전쟁, 기아, 테러,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등 미래

의 다양한 도전에 맞서려면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안보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 재선 도전을 포기함으로써 이번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참석하는 유엔총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재선 도전 포기 결정을 소개하면서 “동료 정상들이여, 우리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국민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자”고 주문했다.

미국 언론은 이 당부가 세계 곳곳의 독재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의 용단 폭격이 이어지자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피란하는 현지 주민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EPA=연합뉴스

## “피란길 상공 전투기”...레바논 남부 공포

### 피란민 50만명 추산...북쪽 가는 길 인산인해 아비규환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주민들에게 헤즈볼라 시설 근처를 떠나라고 경고한 후 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곳곳에 용단 폭격을 가했다. 공격이 격화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는 수십만명의 피란 행렬로 아비규환이다.

여기저기 무차별적 공습으로 집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다.

수도 베이루트 북쪽 교외지역인 데크와네의 한 학교에 몸을 맡긴 하산(2

3)은 피란 당시의 공포를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레바논 남부 디에르 알자라니에 살던 그는 거세지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피란했다. 몇 가지 짐만 싣고 나선 도로에는 이미 수천명의 사람들이 몰려 변잡했다고 하산은 말했다.

상공에는 이스라엘 전투기와 드론이 날아다녔고, 공습으로 인한 연기와 미사일 소리가 두렷했다.

하산은 당시 상황이 “끔찍했다”며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어쩌면 더 지않아 우리도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더 이상 없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알달라 부 하비브 레바논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최근 공격 전에 레바논에는 약 11만명의 피란민이 있었지만 이제 5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대에서 헤즈볼라와 교전을 이어온 이스라엘은 최근 공세 강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 23일부터 레바논 곳곳을 대규모로 폭격하는 이른바 ‘북쪽의 화살’ 작전을 단행했다. /연합뉴스

## 中, 달 연구기지 준비 로켓 2026년 첫 발사...2035년 건설

### 두차례 발사 연구기지 기반 확보...프로젝트에 10여개국·40여개 국제기구 참여

중국이 오는 2026년부터 두 차례 추가 우주선 발사를 통해 ‘국제 달 과학연구기지’ (ILRS) 건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중국 국가항천국은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뒤 복귀한 ‘창어 6호(사진)’ 임무 이후 중국 달 탐사 프로젝트는 두 차례 발사 임무로 ILRS 기지를 다질 것”이라며 “이르면 2035년 첫 발사 임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ILRS 건설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첫 단계는 2025년까지 달의 남극 지역을 중심으로 100km 범위의 과학 연구 능력을 갖춘 기본형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지구-달 일체화 네트워크’를 통해 무인 달 탐사와 유인 달 착륙, 국제 협력 등 임무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단계는 2050년 전에

달 궤도 정거장을 허브로, 달 남극 기지를 중심으로, 달 적도와 달 뒷면을 분절점으로 하는 달 종합 기지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계획에 따라 2026년에 달 남극 환경·자원 탐사 목표로 하는 창어 7호를, 2028년에는 달 자원의 현지 활용 기술 검증과 ILRS 준비를 위한 창어 8호를 각각 발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평 국가항천국 달 탐사·우주 프로젝트센터 부주임은 “창어 8호는 통신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달에는 분명 무선 네트워크(인터넷)와 에너지가 있게 될 것”이라며 “과학자들은 (달에서) 채소 재배가 가능한지에 관해 연구 중이고, 창어 8호는 이런 연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ILRS 프로젝트에는 총 10여개국과 40여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

다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2010년대 이후 달 탐사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국가로 꼽히는 중국은 ‘우주 굴기’를 외치며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嫦娥·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를 시작했고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 올린 뒤 2013년에는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어 창어 4호는 2018년 12월 발사돼 2019년 1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다. 2020년 발사된 창어 5호는 약 2kg의 달 관련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고, 올해는 창어 6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수집해 지구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SONY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